

무주, 지적 구축 드론 날리다

25일 무주읍 뒷섬 지구 항공촬영 진행... 경계협의 등에 활용 계획

무주군이 스마트한 지적 구축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5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무주읍 뒷섬지구(311필지, 142,354㎡)대해 항공촬영을 실시했으며 해상도 높은 최신 정사영상(항공사진에서 [정사보정-지형 기록에 의한 왜곡을 보정하고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 과정을 거친 영상)을 확보해 경계협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도의 경계를 조정해 오차 없는 지적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지표면 근접 촬영이 가능해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 파악이 빠르고 정확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조사하거나 경계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

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무주군 내 지역 중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불합합 지역에서 추진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박금규 팀장은 "고해상도 드론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며 "토지 소유자의 토지경계 확인에 활용하는 등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현황측량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지도·연구 공무원들 모듬활동 눈길

사과, 복숭아, 천마 등 품목별 연구·실습

무주군이 농촌진흥공무원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은 변화하는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

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의 품목별 현장 지도 노하우 전수를 위해 선후배 지도·연구 공무원 간 공동학습을 위한 조직 학습체(5개 팀)를 운영한다.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지난 14일부터 사과와 배, 고추 등 공통 품목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품목별 강사는 팀장급 선배 공무원들이 맡는다.

'1인 1특기'를 갖기 위해 진행되는 조직학습은 사과와 복숭아, 천마, 토마토, 포도 등 품목별로 진행하며 5~6명이 한 팀이 돼 올 1년 간 다양한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와 농가포장 등에 학습포를 선정, 공무원들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직접 진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기술기획팀 팀장은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현장지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실습 위주의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과정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전문교육에서도 학습하기 어려운 현장 활동 위주의 교육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농촌진흥공무원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장수군보건의료원이 판독의뢰용 장비(PC) 설치를 통한 응급영상판독지원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사선영상장치(PACS)를 연동한 응급영상판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 사업은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질 제고를 위해 취약지 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영상진단 어려운 경우 외부 영상판독 업체의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판독 의뢰 하는 사업이다.

응급영상 협진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PACS 영상을 공유하면 판독의가 취약지 병원 의뢰 의사에게 판독 결과를 제공(24시간 상시, 1시간 이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상황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판독 의뢰·회신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실시간 지원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생활민원팀은 주민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 생활민원팀 민원 해결사 역할 특출

보일러, 상·하수도, 집수리 등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25일 소외계층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팀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 생활민원팀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설비, 집수리 등 다양한 주민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가 신속히 해결해 주며 주민 불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6급 담당(전기운영직)과 공업직, 기계운영직 전문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군민들이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1일에는 백운면 동창리 석전마을에 사는 차상위계층 정모(82)씨가 목욕 등을 물을 끓여 사용 하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온수기를 설치해줬다.

또한 이날 초에는 동향면에 사는 김모(65)씨 가름보일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외계층 군민의 크고 작은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활민원팀은 관내 6,500여 개 가로등(보안등)의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의 야간 방범 활동에 불편을 해소 하고 있다.

군은 2017년 2,445건, 2018년 2,701건 등 1년에 2,500여 건의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일러 161건, 집수리 66건, 전기시설 172건, 상·하수도 142건, 가로등 2,124건, 기타 36건 등 2,701건의 다양한 생활민원을 해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인삼 저온피해 예방 총력 대응

농진청 전문가와 현지조사... 출아시기 진단 등 기술지도

진안군은 이상 기온에 따른 인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함께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초 인삼 조기 출아에 대비해 해가림시설과 방풍울타리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저온피해 예방에는 인삼 출아기 예측이 중요한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상고온으로 조기 출아가 진행된 관내 인삼밭에서 그해 4월 7일에는 영하로 떨어지면서 진안군 인삼 재배면적 621ha 중 72%인 449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인삼 해가림망과 방풍울타리 설치가 빨랐던 일부 농가는 저온 피해가 적었으며 수세 회복이 빨라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김필환 소장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현장에 활을 실시하고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이상 기온에 대비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생육 기반을 만들어 고품질의 진안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가축질병 차단방역 축산 농가에 약품 배부

장수군은 25일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예산 850만원을 투입,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1,430kg을 지원 배부한다고 밝혔다.

소독약품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염소·사슴 1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전농가, 닭 500수 이상 사육농가,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로 오는 4월 중순까지 무상지원한다.

지원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년 24회 소독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독은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최우선 조치인 만큼 모든 축산 농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실시기부에 소독여부를 작성 후 1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진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전국 전체 법인의 96%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진안군 소재 대부분의 법인은 금년 4월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2018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567건, 6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매년 부과건수 및 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물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증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지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위 서류들을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